

기념사

—시대를 거스르는 동키호테를 위하여—

김길중 선생님이 올 여름으로 정년을 맞으시다. 축하 말씀 드릴 일은 물론 아니지만, 위로 말씀 또한 어울리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그렇기는 해도, 당신 속내야 어찌 알라마는, 명색 조이스 학자임을 자처하는 후학 입장에서 못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을 억누르기 어렵다. “못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어정쩡한 표현은 어느새 그런 연배에 이르셨나 하는 당혹감의 소산이다. 하기는 조이스학회에서 제1세대라 할 수 있는 김종건, 진선주 두 선학의 뒤를 이으시며 70년대 학번인 제3세대를 이끌어주신 제2세대가 아니시던가. 정년을 맞으시다 해서 학문 활동이 뜸해질 리 만무하건만, 그만큼 선생님 곁에서 느껴온 정신적 기백이 젊은이 못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런데 그 기백이 여러 모로 동키호테를 연상시킨다는 점이 재미있다. 자신이 상상하는 것과는 판판으로 달라진 시대에 이전 시대에나 평가받을 만한 원칙과 가치를 독야청청 지켜나가려는 그런 태도 말이다.

선생님은 무엇보다 학문적 열정에 있어서 시대를 거꾸로 사신다. 웬만하면 당대에 행세깨나 하는 특정 이론에 기대어 작품을 멋대로 재단하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류의 분석이 판치는 세태에서 선생님은 독자적인 화두를 붙들고 구체적으로 씨름을 하신다. “데레바운 세라운(Derevaun Seraun)”이라는 수수께끼 어구에 대한 선생님의 논문은 이런 점에서 내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이스의 단편 「에블린」(“Eveline”)에 등장하는 게일리어로 보이는 이 표현에 대한 그간의 해석은 “쾌락의 끝은 고통”이라거나 “노래의 끝은 뜻 모를 헛소리” 따위였다. 그러나 선생님은 아일랜드 언어에 대한 해박한—한국인이기에 더욱 희귀한—지식을 발휘하여 “여인네 삶의 끝은 고통”이라는 독창적인 견해를 밝히신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의 식견을 믿기도 하지만, 이야기의 맥락으로 보아서도 이 해석에 무게 있는 타당성을 부여하고 싶다. 과문한 탓인지도 모르지만, 이와 같은 조이스 평론은 탁월한 언어학적 비평가인 프리츠 센(Fritz Senn)의 글을 빼고는 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국내 외국문학계에 이런 논문이 과연 흔할까. 물랑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선생님이 내공에 비해 과작이라는 사실조차 이래서 오히려 미덕으로 다가온다.

학회 활동에 있어서도 선생님은 시대를 거스르신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갑투 쓰고 마스크 쓴 데 바쁜 아류와는 비교하는 것조차 민망하다. 선생님이 조이스학회 회장직을 맡으신 것이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영미문학교육학회 회장직을 맡으신 것도 사정상 부득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조이스학회 회장직을 수행하신 방식이다. 선생님은 학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셨고, 또 이를 위해 동료 회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곤 하셨다. 다가오는 가을에 4회를 맞게 될 격년제의 국제 제임스조이스 학회와 이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에 발행되는 영문학술지는 바로 선생님 홀로 구상하시고 동료들의 흔쾌한 성원을 끌어내며 활기차게 추진하신 선생님의 비전과 실천 정신의 산물이었다. 또한 타 학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이스학회만의 독보적인 학술 모임인 월례 『율리시스』 독회도 선생님의 주도하에 출범하여 지금까지 8년에 걸쳐 활기차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거니와, 이 독회는 최근 언론에 크게 소개되는 작은 기쁨도 누렸다. 선생님은 이밖에도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한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안도 내놓으셨지만 후학들의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뒷받침해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조이스학회가 이토록 단단하게 뿌리박게 된 것이 선생님 아니었던들 가능하였을까?

인품에 있어서도 선생님은 시대 조류를 타지 않으신다. 향간에 유행하는 스캔들이나 유행어, 또는 연예계나 스포츠계의 스타들에 대해 아예 까막눈인 것은 차라리 애교에 속한다. 학문에 전념하시는 탓이라는 생각에서다. 까마득한 후배들에게까지 극존칭을 써주시는 바람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허다하다. 겸손하고 소박하신 데다 부드럽고 착한 성품까지 지니셔서 웃는 얼굴에 따뜻한 태도를 잊으실 때가 없다. 그런 친화력이 있기에 달마다 갖는 독회 모임이 항상 화기애애한 가운데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면서도 내면에는 올곧은 가치관을 감추고 계신지라 가령 올 봄에 있었던 전국 교수들의 시국선언에서 선생님의 성함을 발견하는 반가움도 안겨주신다. 외유내강이 천부적으로 몸에 배신 분이 과연 무게 잡으며 자신을 내세우고 잇속 챙기는 데 앞 다투는 소인들의 속내를 당최 짐작이나 하실는지.

이 글을 보시면 꼭스럽게 좋은 말만 늘어놓았다고 불쾌(?)해하실까 저어되어 부정적인 얘기 한 마디 보탠다. 요즘 같은 스피드 시대에 무얼 믿고 그러시는지 굵뜨시기가 짝이 없다. 말솜과 행동이 다 그러하다. 말솜이 느리기만 한 게 아니라 만연체로 길게 이어지다 보니 불쑥 어떤 얘기를 꺼내실 때에는 말은 빨라도 생각은 둔한 나 같은 사람은 선생님 얘기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혼미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궁리가 깊고 천착이 넓으신 탓이려니 하고 알아듣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내심 계면적을 때가 종종 있다. 혹여 이 또한 남에게 뒤질 세라 재빨리 추측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한 후학들의 보속을 늦추려는 깊은 뜻일까?

우리 학회지 『제임스조이스저널』의 올 여름호가 선생님의 정년기념호로 꾸러졌다. 마침 조이스학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터여서 더욱 뜻깊게 느껴지고 감회가 새롭다. *Dubliners*, *Ulysses*, *Finnegans Wake* 등 분석대상으로 다루어진 작품도 다양하고, 국내의 Woolf 학자들과 외국인 학자의 투고도 눈에 띈다. 이 알찬 잔칫상에 은은히 감도는 선생님의 향기로운 숨결이 피부에 와 닿는 듯하다. 그 숨결을 활력의 원천으로 삼아 학회가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빌어본다.

2010년 6월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학회장 이종일